



악한 인간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해결책은 없는가?

—칭의와 성화—

전성용

(서울신대교수 · 조직신학)

「성결교회」는 성결한 교회, 성결한 삶을 목표로 하는 교회다. 성결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상이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지상명령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 : 45).

이 글에서는 특별히 웨슬레신학에서 정리된 성결이해를 칭의와의 관계에서 요약하므로써 다른 신학과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성결과 성화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 성서적 근거

거룩하게 한다는 뜻 성화(聖化, Sanctification)는 구약에서는 ‘카다쉬’라는 말로 표현하였는데 본래 ‘분리하다’ ‘베다’에서 온 말로써 죄악된 것과의 구별과 단절을 의미한다. 즉 순결, 분리, 초연함, 위엄 등을 나타낸다. 신약에서 사용된 ‘히기야조’는 ‘거룩하다고 간주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구약의 카다쉬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창 2 : 3에서 인공체 날을 기록하게 하셨다고 했으며, 마 6 : 9에서 “이름이 기록히 이름을 받으시오며”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전 1 : 2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하여지고”라고 하였으며, 6 : 11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과 기록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하였다. 뱀전 1 : 16에서는 “기록하였으되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할지어다”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도들이 실제로 기록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당시 지식은 실제로 성령 안에서 기록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2. 역사적 고찰

최초로 성화론을 발전시킨 사람은 어거스틴이다. 그는 칭의와 성화를 분명하게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후자가 전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는 타락으로 말미암은 전적 부패를 주장하였기 때문에 성화를 신적 생명의 초자연적 부여, 즉 성례를 통하여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아퀴나스는 칭의와 성화를 명백하게 구별하지 않았으나 신적 은혜가 인간의 영혼에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보다 높은 질서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알고 소유하며 즐기게 된다고 하였다.

부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의롭게 된 자는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여 그것이 짐추하는 것을 성화시킨다. 또한 성령이 그 말씀을 주권하시고 교회를 성화 시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화도 칭의처럼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사후에 완성된다고 보았다.

갑변은 칭의와 성화를 구별짓거나 시간적인 선후를 나눌 수 없다고 하여 동시적인 사건으로 보았다. 성화도 칭의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결과로 생각했으며 회개를 통하여 일어난 외적인 변화 뿐 아니라 영혼자체의 변화를 의미했다. 수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화는 하나의 과정으로 죄와 싸우는 투쟁은 평생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의식의 점진적인 지배(슬라이에르

마허) 또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도덕적 완성(리츨) 등으로 보았다.

바르트는 칭의와 성화를 시간적 선후에 둘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서로 다르다. 그러면서 이 양자는 서로 종속한다. 목적에서 보면 성화가 칭의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신적 행위 안에서의 순서는 칭의가 선행하고 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성화의 완성이다. 십자가는 방해이며 신자가 결코 시련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의 운동에 있어서 최후의 것이 아니며 잠정적인 것이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십자가의 위엄보다 크기 때문이다. 신자의 십자가는 예수의 다시오심이라는 목표를 지시해 주며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기독교의 희망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칭의와 성화를 거의 같은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완성으로 보았다. 그런데 웨슬레에 의하면 성화는 칭의와 구별하여 이해 되어야 할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나아가서 성화는 현재에서 성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가장 독창적인 웨슬레의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칭의와 성화

요한 웨슬레는 어거스틴이나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좋은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강조한 은혜의 신학자이다. 그는 성화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현재 여기에서 얼마나 깊이 역사하느냐 하는 것을 어느 종교개혁자보다도 명백하게 통찰하였고 중요시하였다. 구원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온제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웨슬레는 주장한다. 선사를 칭의, 후사를 성화라고 구분한다. 칭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적 또는 율법적으로 보아 우리가 죄책에서 용서를 받는 상대적인 변화를 말하며 성화는 주관적으로 보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에서 자유를 얻는 실제적인 변화를 말한다. 진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언급한다면 후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간상에서 본 것이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의 똑같은 은총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칭의는 성화의 과정의 시작이요 성화는 칭의받은 사람이 더욱 심장하여 이루어

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칭의없이 성화가 있을 수 없으며 성화가 없는 칭의는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4. 초기의 성화

성화의 과정에는 점진적인 요소와 순간적인 요소가 있다. 웨슬레 당시 모라비안에서는 사람이 거듭나는 순간에 완전히 성화되어 더 이상 성장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웨슬레는 이러한 극단주의를 지양하여 성화에도 점진적 요소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성화의 과정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 첫번째 단계가 초기의 성화(Initial Sanctification)이다.

사람이 거듭날 때 (중생) 성화가 시작된다. 중생은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의 완전하고 독립된 사건이지만, 그러나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의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중생을 성화의 관점에서 볼 때 초기의 성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단계는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화의 과정에 들어갔으나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 전까지의 신자의 상태를 말한다. “그는 겸손하나 온전히 겸손하지 못하며 그의 짐승은 자만과 섞여져 있다. 그는 온유하나 때때로 분노가 그의 온유를 부위버린다.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용해되지 못했다.”

초기의 성화, 즉 중생한 신자는 점진적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시간에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겪게 되며 승리와 패배를 교대로 겪게 될 때가 많다.

5. 온전한 성화

웨슬레에게는 두 개의 순간적인 체험이 있다. 하나는 중생과 동시에 일어나는 초기의 성화요 다른 하나는 그 후에 오게 되는 또 하나의 순간적인 체험 곧 온전한 성화(Entire Sanctification)이다. 전자를 불신자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얻는 순간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신자가 자기 안에 남아 있는 죄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신앙체험이다. 이것을 웨슬레는 '제2의 축복', '두번째 변화', '온전한 구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것의 본질은 온전한 사랑, 순수한 사랑,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순간적인 체험을 통하여 신자는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부터 씻김을

받으며 사랑과 봉사에 더 큰 힘을 얻어 승리하는 생활의 계기가 된다. 것이다. 그리하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성화의 단계에 이르렀던 사람도 그것을 상실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는 죽기 직전에 온전한 성화의 단계에 이른다. 하겠다. 그러므로 순간 순간 회개의 믿음으로 성화에 이르도록 해야 할 것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받은 사람도 성도로서 승리 할 때까지 계속 전진하여야 할 것이다.

6. 성화론의 의의

많은 신학자들은 구원론을 말할 때 칭의론에 그치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악한 인간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해결은 없는가고 문제가 되며 하나님의 은총은 겨우 의롭게 하는 데까지만 행동하는 값싼 것인가 하고 반문하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써 웨슬레의 성화론은 의의가 있다. 웨슬레는 죄의 깊이를 그들 못지않게 보는 동시에 더욱 깊게 구속의 은총을 투시함으로써 신자에게 소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값비싼 은혜를 천명한 것이다. 은총의 역사를 미래에 남겨놓고 체념하고 있는 듯한 종교개혁자들에 비하여 웨슬레는 보다 실존적인 관점에서 현재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봄으로써 은총의 낙관론을 천명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이 성화론은 오늘의 교회생활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으로써 그 교리의 강조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결 론

오늘날 성결교회가 강조해야 할 「사중복음」과 「성결」이 퇴색하고 무력화된 감이 없지 않다.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에 주력한 나머지 질적 성숙과 내적 성장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적 성장과 함께 내적 성숙을 양립해야 할 것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성결운동」이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성령세대의 외적 현상이 은사와 축복이라면 똑같은 성령세대의 내적 결과가 성결이요 사랑의 삶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성결의 도리를 신학적으로 요약하였다. 그러나 글이 어느 정도 딱딱하고 진부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신학의 한계이다. 성결은 신학이 아니라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실제 체험에서 우리나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성결의 도리가 진술되어야 할 것이다. 